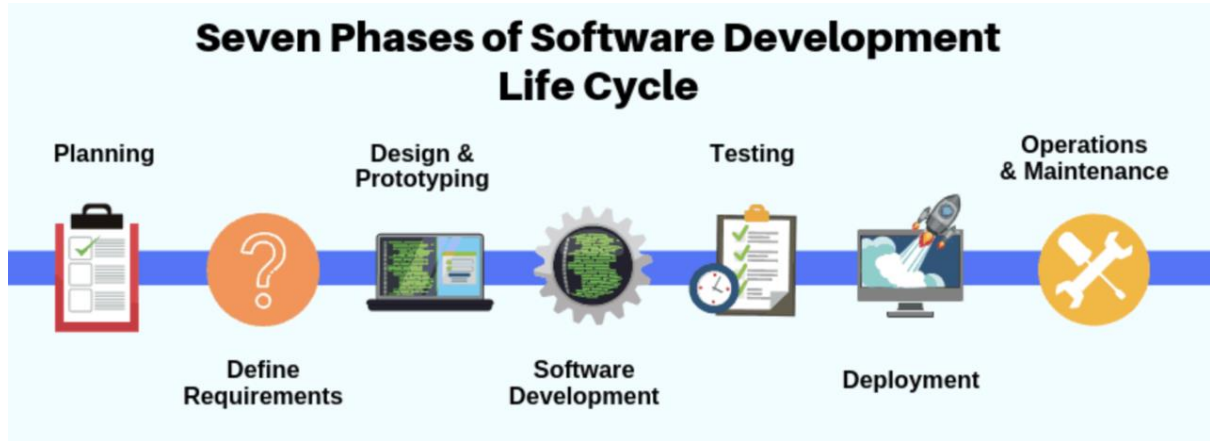


오종인님의 특강을 듣고서..

20223091 서동현

처음에 나온 내용이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이었다.



아직 이러한 그림이나 과정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정말 신기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풀스택에 대해 들었다. 아직 개발쪽에 지식이 많지 않아서 풀스택이 뭔지 몰랐는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전부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다. 이번에 웹서버컴퓨팅을 수강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백엔드를 접해서 그런지 어려웠다. 그러나 풀스택은 백엔드와 더불어 프론트엔드를 같이 하니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회사에서는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풀스택을 원하는 것을 듣고 납득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말 실력을 잘 쌓아야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장애 vs. 버그 vs. 기능

다음으로 흥미있게 본 내용은 장애, 버그, 기능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다. 하나씩 본다면 장애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안되요

발생했을 때 알아야 함

아직 회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해본적이 없어서 처음에 저 말을 봤을 때는 '안되요' 라는 말이 웃겼지만, 미래에 고객에게 저런 말을 듣고 투덜거리면서 야근을 할 내 모습을 떠올리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었다.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다음으로 버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때, 버그는 지나간 현상이어서 찾으려고 할 때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버그를 찾을 때는 무식하게 모든 로그를 보거나 노가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알고리즘 같은 문제를 풀 때 이상하면 만든 코드를 한 줄씩 디버깅해서 찾는 것도 힘든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은 수백줄일 것이기 때문에 버그를 찾는 것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개발자로서 회사를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안 것 같다. 장애나 버그가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모니터링이나 Code Review, TestCase 등을 해야한 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많은 개발을 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미래의 나를 위해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특강이었다.